

# 군산시, 시내버스 노선변경 운행

## 2개 노선 신설, 18개 노선 변경... 원도심 지역 경유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는 오는 14일부터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해 운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기준 현재 군산여객(주)과 우성여객(주)의 2개 업체에서 118대의 버스가 56개 노선, 1,246회 운행을 하고 있으며 이번 노선변경을 통해

58개 노선, 1,252회로 운행하게 된다.

이번 노선변경에서 현행유지는 34개 노선으로 24개 노선이 변경되며 이중 2개 노선이 신설, 18개 노선이 변경, 4개 노선이 단축 된다.

시는 시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군산대, 재래시장, 원도심 지역을 주요 노선으로 경유 하도록 했으며, 군산

역,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을 경유해 관광객의 연계성을 강화 했다.

또한 이주단지, 아파트 신축, 통행대교 개통,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탄력적 노선변경을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군산시에서는 노선변경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자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내 일일 23개의 도로전광표지판(VMS),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노선변경 안내 홍보를 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환경친화 버스이용객들의 요구사항을 다 해소 하지 못하는 부분과 일부 노선 단축 되는 지역도 있어 노선변경에 어려움이 있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와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줄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농산물 수출확대 나선다

### LA 한인축제 및 농수산물 우수상품 엑스포 참가

지역의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홍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날 26일부터 29일까지 미국 LA 서울 국제공원에서 열린 제46회 LA한인축제 농수산물 우수상품 엑스포에 군산시 6개 업체가 참가하며 우수성을 알렸다.

김입준 시장은 LA한인축제에 참석해 개막식 행사 및 미국 지역에 방송되는 KBS America 인터뷰를 통해 군산시 근대역사관광지구, 농수특산물 등을 홍보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코트라 LA무역관, 한국관광공사 LA지사 등을 방문해 참가업체 지원을 위해 군산지역 업체 상품 홍보에도 힘을 모았다.

특히 올해에는 축제장에 군산시 홍보관 부스도 운영하며 새만금의 도시, 군산시간여행 등을 소개하고 엑스포 기간 동안 군산의 우수상품인 어간장, 떡볶이, 젓갈류, 배, 곱창김, 멸치, 장아찌 등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참가한 6개 업체는 2억 5천만원의 판매액을 올리며 군산농수산물의 우수성을 다졌다.

또한, 현지 업체 바이어들에게 옛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막걸리, 누룽지 제품을 소개해 인기를 끌었다.

우리상품의 전시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현지 4개 업체의 바이어와 상담을 통해 수출 길을 모색하는 등 미주시장 개척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농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오는 10월말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에 참가하면서 이번 우리업체의 장류, 떡볶이, 박대 등 군산 공장을 현장 방문하여 수출 상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입준 군산시장은 "이번 방문으로 군산시 농수산물의 미주시장 진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발굴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은 4일 삼지원 및 왕궁초소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현장을 찾아 방역초소 근무자를 격려했다.

## 익산시, 환경개선 예산 대폭 늘려

### 미세먼지 회피승강장 설치 등 약 100억 원 편성

익산시는 올해 도심환경조성 추경 예산에 약 100억 원을 확보해 미세먼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그림과 색으로 표현하는 미세먼지 신호등도 3곳에 설치되며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정보 확인하여 마스크 착용이나 외부활동 자제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와 매연저감장치, LPG차량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38억6000만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2,400대에 대한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도 약 27억 원을 편성해 지원대상 920여대를 확정하는 등 도내에서 가장 많은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65세이상 어르신에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약 7만3000개를 보급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주요 간선

도로와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살수차 2대를 투입해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제3일반산단에 오는 12월까지 미세먼지 차단숲을, 지역 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녹지공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며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 운동목 군산시부시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초소 점검

군산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초소를 점검하며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운동목 군산 부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들은 가축방역 상황실과 관내 거점 소독 초소 등을 방문해 방역활동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9월 17일 과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최초 발생해 전북지역은 위험이 크지 않으나 잠복기 및 차량에 의한 전염 등의 위험이 한층 고조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단계다.

군산시는 지난날 28일부터 전국 최대규모의 돼지 사육지역인 충남과 경계지역인 금강하구둑(서천→군산)에 거점 방역초소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2개소의 거점 방역초소에서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꼼꼼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제18호 태풍 '미탁'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비와 바람 등을 핑계로 한 축산농가들의 안일한 방역태세, 방역초소근무자들의 근무태만 등 방역에 소홀하지 않도록 독려했으며 태풍 이후 비로 인해 슬러 내려간 소독약 및 생석회 등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주문했다. 또 밀집사육단지인 서수양돈단지의 이동 통제초소 운영에도 각별히 신경 쓰도록 지도했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행정력을 총 동원해 철저한 사전대응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양돈농가에 1일 2회 철저한 소독과 예방,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 양돈농장 외국인근로자 고향방문 및 발생국 여행 자제, 축산농가 모인(진목모임포함) 전면금지 하는 등 ASF 예방에 적극 대처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홍보 사진 · 영상 공모전' 수상작 발표

### 각 부문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등 16명 선정 홈페이지, SNS 등 익산시 홍보자료로 활용 계획

익산시가 지난 8월 14일부터 한 달 여에 걸쳐 진행한 '익산시 홍보 사진 · 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지난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익산에 있는 아름다운 명소, 문화유적지, 맛집 등을 담은 우수한 작

품들을 선정해 시를 홍보하는 데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 동안 총 사진 105점, 영상 22점이 접수됐으며 1차 자체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각 부문에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 입선 4명 등 총 16명의 수상

자를 선정했다. 공모전 사진 부문 최우수상에는 '달빛야행'이, 영상 부문 최우수상에는 '시티투어버스 타고 즐기는 익산 숨은 보석찾기'가 선정됐다.

정춘호 심사위원은 "이번 출품작들이 전반적으로 작품성이 뛰어나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며 "많은 고민 끝에 선정된 우수한 작품들이 익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관광지 등을 널리 알리는데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고 총평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시 금고 지정 심의위 개최, 농협 · 전북은행 선정

자립도시 군산시가 2020년부터 3년간 시 자금을 관리할 금고로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을 선정했다.

시는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2일 '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시 금고 지정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군산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렸다.

심의결과 1위를 차지한 농협은행은

내년부터 오는 2022년 말까지 2019년 예산 기준 1조 34억 원 규모의 일 반회계를, 2위를 차지한 전북은행은 1천298억원 규모의 특별회계와 365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맡아 운영한다.

시는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시 금고 지정 공고 후 금고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협의한 뒤 약정을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금고 업무를 개시한다.

/군산=김정훈 기자

## 정현을 익산시장, ASF 방역현장 점검

정현을 익산시장은 4일 삼지원 및 왕궁초소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 현장을 찾아 방역초소 근무자를 격려하고 농장초소를 통과하는 가축, 사료, 분뇨 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철저히 소독하고 초소 근무자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타시도 생축, 사료 반입금지 등의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농가 및 축산 시설 출입구 생석회 도포와 축사 내 · 외부의 세척, 소독 등이 즉시 이행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동절기 특별방역이 시행됨에 따라 북부지역에서 유입되는 모든 축산차량에 대한 통제 및 소독을 위해 응포대교 등 2개소에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위험요소 방역대책 추진을 강화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